

**발언대**

**한국 '의료 4강' 가능하다**



**박 인 출**  
코리아의료관광협회 회장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최빈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경제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세계 어딜 가나 코리아, 코리아인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도 국제 경쟁이 시작됐다. 다름 아닌 '의료관광'이다. 올 5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의료를 적극 알리고 국내 의료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우리 의료진의 우수성과 기술 순위를 세계시장에서 따져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미 의료 관광 분야에는 아시아권에서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일찍이 투자개방병원 제도를 도입,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기틀을 구축한 태국은 연간 120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국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2012년 해외 의료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1만3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및 국내총생산(GDP) 1% 부가가치(연 16억 달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부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관광체육부, 자치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민간 차원 역시 대단하다. 의료관광에 거는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의료관광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012년 전 세계 4000만 명,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방대한 시장.

이 거대한 황금알에 '세계 4강'이라는 비전을 걸고 싶다. 그것도 10년 후인 2020년에는 말이다.

이제 막 본선에 진출하는데 세계 4강이라니 지나친 목표가 아니냐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국제 학술대회와 병원의 성공적 해외 진출 사례를 보거나, 입소문으로 찾아온 해외 환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2020년 의료 세계 4강의 신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20여 년간 우수한 인재들을 독식하다시피 한 의학 분야가 아닌가. 게다가 우리 의료는 선도국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어 의료관광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관광이 법으로 규제돼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갑자기 큰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려니 각 주체 간의 이해 상충이나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의료 세계 4강'이라는 비전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큰 뜻 아래 서로의 역할을 다한다면 지역적인 입장 차는 일거에 풀릴 것이다.

미래의 의료는 더 이상 질병을 치유하는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장수시대에 의료는 소수의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정상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는 10~20년 내에 수십 배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2020년 의료 세계 4강'이라는 비전이 절실한 이유이며 의료관광은 그 목표를 위한 시작이다.

**'핵' 가진 북한 관리가 진짜 이슈**



**시론**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2009년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으로 시작됐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런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한반도의 긴장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6자 회담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으며 지난 주에는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에 더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고 남한과 미국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의 배경에는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북한의 정치적 리더십 승계의 어려움이 현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배경에 깔려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정책 공조의 전망은 무엇인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 같은 부상하는 패권과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북한 정책은 전통적인 동맹들과 긴밀한 협력과 함께 외교적인 해결을 원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의 '위조성과 그 후 보상'이라는 패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남한의 이명박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권 초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많은 협력사업이 붕괴됐다. 반면 지난 달부터 약간의 진전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정부의 비슷한 관점은 긍정적이지만 나는 여전히 몇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우려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패권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외부 압력에 대한 준비가 잘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최근 반응은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북한의 선언이 사실인지 불명확한 반면, 남한과 미국은 북한에 좀 더 압력을 가해야 할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을 단순히 무시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우려는 이러한 과정이 거의 15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은 아마도 핵무기와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를 교환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평양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남한이 결코 북한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간의 사건들이 확실히 보여줬다고 믿고 있다. 남한과 미국 역시 예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제 실질적인 북핵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결과 이제 진정한 이슈는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가'이다.

남한과 미국이 정책 공조가 잘 이뤄지고 북한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속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큰 이슈로 남아있을 것이고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는 모두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재산 세금보고' 세미장의 한숨**



**기자 칼럼**  
**신 승 우**  
OC취재부 기자

지난 1일 세리토스의 한 교회. 저녁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행사였지만 이미 이 곳은 600명이 넘는 한인들이 가득 차 있었다.

행사시작 수 십분 전부터 파김칫아는 빈자리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스트리트 파크도 쉽지 않았다.

한인들은 교회나 학교 각종 모임에 항상 30분씩 늦는다는 것을 비꼬아 만들어진 '코리아 타임'이란 단어는 이날 찾아 볼 수 없었다.

기자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최근 몇 년 새 열린 무료 세미나 중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강사의 말에 귀를 쫓듯 세운 한인들은 주최측이 나눠준 노트에 중요한 내용을 연신 받아 적기에 분주했다.

바로 월서은행이 주최한 '해외재산 세금보고 세미나'의 풍경이다.

미국정부가 해외에 은닉 중인 재산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섰다.

조세도피 지역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UBS 은행이 고객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에게 우선 자진신고권을 권유하고 나선 것이다.

에초에 발단은 그랬지만 불용은 한국에 재산을 둔 한인들에게 떨어졌다.

마감 기한인 23일이 코앞에 닥치자 자진도 해달라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해 앞다투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다.

사연도 다양했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7년 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가 문제였다. 4년 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한국 은행에 예금했지만 이익금이나 은행 이자에 대해 미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상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임대수입이 연간 1억원이 넘지만 5년간 단 1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개중에는 몇 년 전부터 달러화가 급등하자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에 거액을 송금했던 사람들도 있다.

100만 달러를 송금해 은행 이자까지 원금의 절반가량인 50만 달러의 이익을 챙긴 사람도 있다는 게 행사 관계자의 귀띐이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00만 달러를 2003년부터 5%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넣어 두었을 경우 이번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이자는 총 40만 달러에 달한다.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250만 달러 가량을 몰아 내야 하며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처리까지 받게 된다.

행사 끝무렵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벌금과 합하여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안 한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이는 "이제 와서 수십만 달러를 돌려내니 차라리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취재하면서 기자의 머리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떠올랐다.

미국에 사는 모든 납세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보고를 대행해주는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든다.

행사를 빠져 나오며 미국에서는 숨기는 게 없이 정직하고 깨끗해야만 보장된 권리를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1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www.koreadaily.com **미주중앙일보 사장 김용일**

LA중앙일보 발행인 김용일 편집국장 이종훈 광고국장 이정우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대표전화 (213)368-2500 편집국 (213)368-2652, 팩스 (213)389-8384 광고국 (213)368-2514, 팩스 (213)365-2333	기사제보 (213)368-2628 광고문의 (213)368-2514 구독신청·불편신고 ·주중 주간 (213)368-2600 ·주말 이간 (213)718-0906 OC지국 (714)590-2500 동부지국 (626)964-3430
---	---

**배원혁 원장 (Andrew W. Bae), M.D.**  
미국 성형외과 보드 전문의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협회 회원

- St. Lou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 D.
- UC Irvine, B.A. & B.S.
- St. Joseph Mercy Hospital: General Surgery
- University of Kansas Hand & Surgery
- UMKC / Truman Medical Center
- Children Mercy Hospital,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BAE Cosmetic Surgery**  
최첨단 성형수술을 믿는 성형외과 보드전문원의  
**배·원·혁 성형외과**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중앙일보의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213-384-7555** 2727 West Olympic Bl. #304, Los Angeles CA 90006 [www.asiacosmeticsurgery.com](http://www.asiacosmeticsurgery.com)